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10~7/16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늘바라는대로이루고있다:선지식의크신사랑(개정판)	김원수 지음	바른법연구원	6	봉암사동안거일기	산강 대혜 스님	불교신문사
2	성자와범부가함께읽는금강경(개정판)	김원수 지음	바른법연구원	7	일상에서의호흡명상숨(빨리어호흡관법경강의)	래리 로젠버그/미산	한언
3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8	어싱:땅과의접촉이치유한다	클린턴 오버/김연주	히어나우시스템
4	금강경강화(문예신서276)	김월운강술	동문선	9	언어진실을전달하는가왜곡하는가(밝은사람들총서18)	박찬욱 기획/한자경 편집	운주사
5	불교와의만남	강건기 지음	불일출판사	10	사찰문화해설가이드북	강계 이지범	중도

책세상

두 선지식이 전한 '선가의 祕書'



격절록 역주
원오극근 지음
강승욱 번역
운주사
3만5000원

설두중현의 100칙 염고에 탄복한
극근 선사 한 철 안거 법문 기록
"후학들 위한 언어도단의 지침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원오 극근 선사 진영. 원오 극근 선사는 중국 송나라 임제종 양기파 스님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선맥을 계승한 제48대 조사다. 한국에는 〈벽암록〉의 저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원오 극근(圓悟克勤, 1063~1135) 선사는 중국 송나라 임제종 양기파 스님으로, 석가모니 부처님 이래 제48대 조사스님으로 한국 불자에게 잘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원오 극근 선사는 최고의 참선 교과서라고 알려진 〈벽암록〉의 저자로도 유명하다.

'종문제일서(宗門第一書)'로 알려진 〈벽암록〉은 〈종용록〉 〈무문관〉과 더불어 3대 선어록(碧巖錄)이다. 〈벽암록〉은 중국 선종 5가 일파인 운문종의 설두 중현(雪竇重顯, 980~1052)이 〈경덕전등록〉 1700칙(則)공연 중 학인에게 중요한 지침이 되는 100칙을 선별해 송(頌)한 것을, 후대 원오 극근 선사가 각 칙마다 수시(垂示, 서언)·착어(著語, 짧은 비평)·평창(評唱, 해석)한 것을 첨부한 것이다.

하지만, 〈벽암록〉 이외에도 설두 중현의 〈설두염고(雪竇拈古)〉을 원오 극근 선사가 무릎을 치며 탄복하고 칭찬해(擊節嘆賞) 쓴 책이 한 권이 더 있는데 그것이 〈격절록(擊節錄)〉이다. 선종(禪宗)의 두 종장, 설두 중현과 원오 극근의 언어도단, 촌철살인의 자유자재한 경지를 맛볼 수 〈격절록〉 역주본이 처음 발간됐다.

역자는 덕우 강승욱 법사로 남산 정일 선사를 은사로 불법에 귀의해 동국대를 졸업하고 군승으로 활동했다. 군승 전역 후에는 경전과 선어록을 강독하며 경전 번역에 매진하고 있다. 현대불교신문에 '격절록 강설(2019)'을 연재한 바 있으며, 도서출판 운주사가 발간한 '선어록 총서 시리즈' 〈원오심요 역주〉 〈마조어록 역주〉 〈방거사 어록·시 역주〉 〈임제어록 역주〉 〈조론 역주〉가 모두 그의 손을 거쳤다.

'선어록 총서' 여섯 번째 권인 이번 역주서도 원문의 문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 철저하고 꼼꼼한 번역과 주요 한문 및 한자어에 대한 풀이, 그리고 원문의 이해를 돕는 방대한 주(註)를 특징으로 한다. 특히, 주석에서는 각 칙마다 〈선문염송집〉과 비교를 하여 그 차이점을 서술하였으며, 또한 각 칙마다 별도로 전하는 원오와 설두의 염(拈)과 송(頌)을 모두 발췌해서 번역하고 이해를 도왔다.

〈격절록 역주〉는 '고칙(古則)과 착어'·'염고(拈古)와 착어'·'평창'으로 구성됐다. '고과 착어'는 설두 중현이 선별한 공안을 전하며 원오 극근이 공안의 한 구절, 또는 한 문장마다 간략하게 착어한 것이다. '염고와 착어'는 원오 선사가 설두 선사의 염을 전하면서 간략하게 착어를 한 것이고, '평창'은 고칙과 염고에 대해 원오 선사가 전반적으로 평(評)을 한 것이다.

〈설두송고〉를 평창한 〈벽암록〉과 〈격절록〉과의 차이는 수시(서언)의 유무(有無)만 있을 뿐이라는 게 역자의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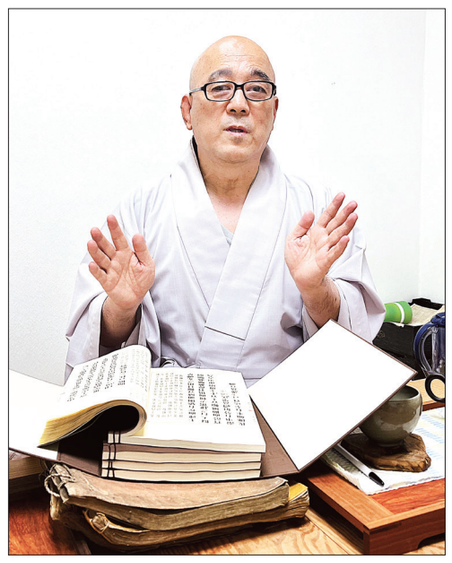
그렇다면 왜 〈벽암록〉에 비해 〈격절록〉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못했을까. 이에 역자는 "단 한 차례 안거 기간 중에 수좌들에게 100칙 공안의 핵심만을 찔러준 선가(禪家)의 비서(祕書) 중 비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격절록〉은 100칙 공안을 통한 화두 공부의 격절(擊節)이고 단도직입(單刀直入)의 교과서다. 역자 강승욱은 "〈격절록〉을 한마디로 말하면 염고(拈古)의 격칙(格則)"이라며 "한 칙을 읽어 물 흐르듯 내려가 무릎을 치고 찬탄하며 붉게 노을 진 하늘을 홀로 걷는 눈 밝은 이를 바란다"고 전했다.

일체 고혼에 법식 베푸는 '시식'
"부처님 제자라면 누구나 실천을"



풀어보는 시식편람
법안 스님 역해
정우북스 펴냄/ 2만 원



조계종 어산 종장 법안 스님이 〈시식편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식은 불교 사찰의 중요한 의례 중 하나다. 죽은 사람의 영혼을 극락정토에 왕생시키기 위해 천도재를 올릴 때, 또는 명절에 선망부모나 일체 고혼들에게 법식을 베풀고 경전을 읽어 주는 불교의식이다. 법식을 베풂으로써 그 공덕과 이익이 큰데 시식을 베풀어 받는 이들이 어둠의 세계(幽趣)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선도(善道)에 태어나게 하고 삼보에 귀의하게 하며 정각을 이루게 한다. 현재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시식을 이와 유사한 영반(靈飯)과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법안 스님이 역해한 '시식편람'은 이러한 시식을 명확히 설명하고 그 의미를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시식통람〉을 편찬한 송나라 종효 스님은 지방이나 가까운 곳이나 승려든 속인이든 이 법을 좇아 행하는 자들과 비록 대부분 그 연유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이를 편찬했다. 시식의 근원 경전이 되는 〈불설구면연아귀다라니경〉을 위시해 〈시감로수다라니주〉와 경전의 서문과 시식의 인연, 시식의 방법, 관심법, 시식정명, 시식연기, 영험기 등 34편을 모아서 펴냈다. 이는 시식을 바르게 하도록 하기 위함도 있으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살생으로 살아가는 광야귀신과 귀자모 등을 제도해 살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살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붓다의 제자들이 그들에게 시식하도록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시식편람'의 역자 법안 스님은 "현재 한국불교에는 광야귀와 귀자모, 염구아귀 등을 위해서 시식하라는 붓다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상의 생반 의식이 발달해 있었으나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면서 "붓다의 제자라면 누구나 생반의 시식을 하라고 당부했는데, 붓다의 당부인 시식을 실천하려면 '시식'에 대해 잘 알아야 할 것이므로 이 책의 출간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종효 스님의 〈시식통람〉과 〈몽산시식염송설법의〉 〈증수선교시식의〉를 번역하고 해설해 '시식편람'이라고 이름 붙였다. 〈몽송시식염송설법의〉와 〈증수선교시식의문〉의 풀이본을 합편했으나 실제 사찰에서 매일 저녁 예경 후 봉행할 수 있는 '몽산시식'을 '석례시식'이라 해 부록을 붙여놓았다.

법안 스님은 "만약 시식하지 않는 자는 자비심이 없는 것이고 나의 제자도 아니며 악도의 무리라고 한 말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제방에서 활용, 붓다의 가르침을 받들어 광야귀신과 귀자모, 아귀 등을 구제해주고 공덕을 지어 다 함께 소원을 이루고 해탈할 수 있기를 발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 편람은 세계불학원 연구소가 2011년경부터 개최한 강독회에서 번역하며 학습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번역, 교감, 교정 등을 거쳐 출판됐다.

서울 서초 대성사 주지인 역자 법안 스님은 조계종 어산 종장, 어산작법학교 학장, 불교의례문화연구소장 등을 맡고 있다. 저서로 〈한국불교 수륙재의문 연구〉 〈삼밀시식행법〉 등 다수의 논저가 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천 년 만에 처음 선보이는 선의 정수!
격절록 역주
원오선사가 한 철 안거 동안 제자들의 확철대오를 위해 설한 법문으로, 선종의 종장인 설두중현과 원오극근의 언어도단, 촌철살인의 자유자재한 경지를 맛볼 수 있다.
원오극근 지음/덕우 강승욱 역주/신국판/양장/624쪽/값 35,000원

선의 정수, 선시의 묘취를 맛보다!
반야의 달 띄워 보세
서울 성북동 약사암에서 경전과 선어록을 가르치고 있는 일휴 스님이 붓다의 근본 가르침인 연기와 무아, 공성을 노래한 게송시와 번역시를 모아 엮었다.
옥당 일휴 지음/신국판/양장/744쪽/값 40,000원

붓다라면 경제학 입문을 어떻게 가르칠까?
불교 경제학
자비, 무소유, 상호 의존성, 지속 가능 사회 등 불교의 관점에서 경제학을 재구성하여 자유시장 경제학을 극복하는 대안을 제시한 흥미롭고 파격적인 책!
클레어 브라운 지음/박찬국 옮김/신국판/무선/256쪽/값 1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